

배포 일시	2022. 10. 13.(목)		
담당 부서	건설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세희 (044-201-4937)
	해외건설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곽인영 (044-201-3530) 주무관 지영근 (044-201-3534)
보도일시	2022년 10월 14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0. 13.(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교통 공적 개발 원조로 아세안에 한국형 인프라 기술 확산

- 한베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착공(10.11), 캄 도로포장 기술시험소 준공(10.13)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이하 ‘국토교통 공적 개발 원조’)*이 아세안 국가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향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 개도국에 기반 시설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 이번주 베트남 하노이(Hanoi) 市에서 우리 스마트시티 기술교육과 수출의 플랫폼이 될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공사를 착수했고, 캄보디아 프놈펜(Phnum Penh) 市에는 공공사업교통부 소속의 도로포장 기술 시험소가 완공된 것이다.

* Viet Nam-Korea Cooperation Center for Smart City and Construction Technology

- 지난 10월 11일 베트남 건설부* 소속 건설교육원**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착공식에는 안세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과 응우웬 쯡 타인(Nguyen Trung Thanh) 베트남 건설부 대외협력국장을 비롯해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 사업추진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 Ministry of Construction of Viet Nam ** Academy of Managers for Construction and Cities(A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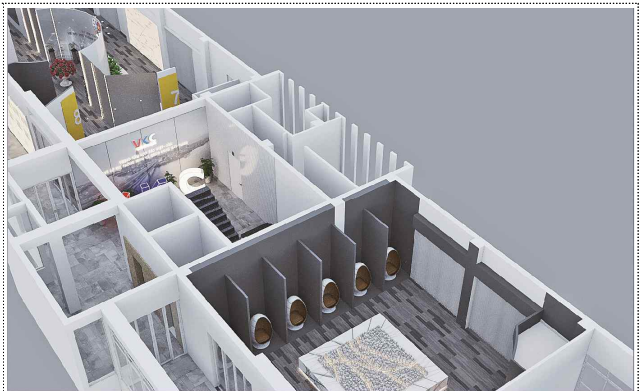
- 이 센터는 국내 건설·IT 산업의 베트남 진출거점과 양국의 스마트시티

협력의 허브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다.

- 연면적 1,600㎡ 규모의 4층 건물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전시관, 스마트시티 인증데이터센터, 스마트 가상현실(VR) 체험관, 교육센터 등이 들어서, 향후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양국의 국제 공동연구,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베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착공식(10.11)



▲ 한-베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내부조감도

- 한편, 캄보디아 프놈펜 市에는 캄보디아 최초의 도로포장 기술시험소*가 국토교통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 건립된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로 구성된 참여기관이 수행하였다.

* 공식 명칭 : Techo Sen Laboratory of Public Works Cambodia-Korea

- 10월 13일 현지시간 15시(한국시간 17시)부터 개최되는 준공식에는 안세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장, 박흥경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 순 찬톨(Sun Chanthol)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장관과 소속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of the Kingdom of Cambodia

-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 청사 옆 1,000㎡ 규모의 부지에 5개의 실험실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적용한 도로자재 품질 시험장비, 도로포장 현장 조사장비 등을 갖춘 시험소가 건립되어, 향후 캄보디아의 도로 건설기술 및 역량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기반 시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캄보디아 도로 포장시험소 외부전경



▲ 캄보디아 도로 포장시험소 내부

- 한편, 국토교통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은 ‘13~22년간 총 31개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 분야 개발컨설팅, 기술이전 등에 1,384억원을 투입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왔다.
 - 국토교통부는 우리기업의 진출분야,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과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친환경 도로, 스마트시티 등을 추진하는 만큼, 국토교통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통해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여 우리 기업이 아세안 지역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